

# IPTV 위세에 입지좁아진 케이블TV, 새 먹거리찾기 분주

**CJ헬로** 전기차 충전사업 출사표  
**티브로드** 가전 스마트렌탈 진출  
**현대HCN** 디지털사이니지 공급

‘전기차부터 스마트렌탈, 디지털사이니지까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유료방송 시장 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으로 파고 들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수의 케이블TV 이용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통해서다. 전기차 충전사업은 매년 200% 이상 확산되는 전기차 보급과 맞물려 ‘미래형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CJ헬로는 국내 1호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포스코 ICT’와 손을 잡았다. 지난 3월 ‘포스코 ICT 컨소시엄’ 공동 수급자로 전기차 완속 충전사업자



모델들이 CJ헬로의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헬로

에 선정, 자체적인 충전소 구축과 함께 유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J헬로는 협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핵심 기반은 권역 내 아파트다. CJ헬로는 현재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소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앱) 기반으로 충전 예약이 가능하고, 1만7000대 이상의 국내 최대 충전 커버리지를 갖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티브로드는 스마트렌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티브로드의 스마트렌탈은 최신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월 할부 형태로 분할 납부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7년 8월 서비스를 출

시해 2017년 약 23억원, 지난해 약 115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삼성, LG 뿐 아니라 대우, 위니아, 교안웰스, 애플, 코지마, 다이슨 등 300여종의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가전 라인업 외에도 해외 명품가전, 중소기업 등 서비스 제품을 확대해 두 배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HCN 역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디지털사이니지다. 디지털사이니지는 대형 모니터, TV, 모바일 등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다. 기아자동차, 현대블루핸즈 등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장에 공급을 확대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미디어 풀, 비디오 월,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무인키오스크를 출시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이 같이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이유는 포화된 유료방송 시장의 한계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유료방송 시장에 뛰어들며, 케이블TV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주요 매체별 현황’에 따르면, IPTV의 방송사업 매출은 증가했지만, 케이블TV의 매출은 감소했다. 2014년~2018년까지 방송매출 평균 증감률은 IPTV는 23.3% 증가했지만, 종합유선방송(SO)은 2.9% 줄어 들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송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IPTV와의 점유율 경쟁으로 주력 사업인 방송통신 매출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다”며 “이에 새로운 매출과 영업이익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주력해 신사업의 발굴과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구조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3일 중국 우한시 우한분공사에서 열린 ‘우한분공사 인수 기념 현판식’에서 우한시 청산구 구서기 류푸탕(왼쪽부터),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시노펙 고급부총재 레이먼우, 우한시 쉬홍란 부시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SK-시노펙 합작’ 중한석화, 우한분공사 인수 현판식 화학 넘어 정유사업 본격화

중국시장 내 입지 확대 기대

SK종합화학과 시노펙이 합작해 설립한 중한석화가 지난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소재 우한분공사에서 시노펙 산하 우한분공사 인수를 기념한 현판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을 비롯해 레이먼우 시노펙 고급부총재, 관저민 중한석화 총경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중 최대 정유·화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중한석화·우한분공사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중한석화의 우한분공사 인수합병 금액은 토지 등 자산을 포함해 128억4000만위안(약 2조2069억원)에 이른다. 지난 4월말 SK종합화학은 이사회를 열고 합작법인인 중한석화의 우한분공사 인수합병을 위해 11억위안(약 1898억원)을 현금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시노펙은 우한분공사 자산(토지)에 20억5000만위안(약 3526억원)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양사 출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중한석화가 현지 차입으로 충당한다. 중한석화에 대한 SK종합화학과의 시노펙 양사 지분 비율은 기존과 같이 35:65로 유지된다.

우한분공사는 1977년 최초 가동한 지역 내 대표 정유공장이다. 하루 17만배

럴의 정제능력을 갖추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3500억원 수준의 영업 이익을 냈다.

SK종합화학은 중한석화의 우한분공사 인수와 관련 “SK와 시노펙이라는 한·중 최대 기업 간 화학사업 협력이 정유 부문으로 확대, 중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정유와 화학을 결합하는 연화일체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한석화는 우한분공사 인수를 통해 중국 내 대표 정유·화학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SK종합화학 측은 “석유화학회사 중한석화가 정유회사인 우한분공사를 인수함으로써 석유화학의 주원료인 납사 등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와 사업 외연 확장으로 중국 시장 내 입지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SK종합화학은 시노펙 경영진은 현판식에 이어진 만찬에서 중한석화 성공 모델에 기반한 다양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종합화학은 울산CLX의 공정 운영 역량과 SHE(안전·보건·환경) 관리 역량을 중한석화에 이어 우한분공사에 이식한다. 특히 울산CLX와 중한석화는 공정기술 교류회를 1년에 4차례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6월부터 우한분공사까지 범위를 확장해 관련 역량을 전수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 ‘베뉴’, 개인화로 2030 공략

(소형 SUV)

세계 최초 적외선 무릎워머  
반려동물 상품, 에어 카텐트 등  
밀레니얼 세대 전용상품 공개

현대자동차가 이달 출시하는 소형 SUV ‘베뉴’의 주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전용 커스터마이징 상품과 고객 맞춤형 사양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운전자 취향을 고려한 ‘베뉴’ 튜익스(TUUX/커스터마이징 브랜드) 상품과 디자인 특화 모델 ‘플렉스(F LUX)’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객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21개의 외장컬러도 선보였다.

튜익스(TUUX) 상품에는 세계 첫 적외선 무릎워머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패키지, 오토캠핑용 공기주입식 에어 카텐트, 스마트폰 IoT(사물인터넷) 패키지, 프리미엄 스피커(케블라 콘 적용),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등이 포함된다.



베뉴 공기주입식 에어카텐트.

‘적외선 무릎워머’는 스티어링 휠 연결 부분 하단에 적외선 복사열 장치를 설치해 히터를 켜지 않아도 운전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다. 오토캠핑족을 위한 ‘공기주입식 에어 카텐트’는 텐트를 베뉴 트렁크 부분과 연결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반려동물 패키지’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7개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 ISOFIX(유아용 시트 고정장치)에 고

정하는 반려동물 전용 카 시트 ▲안전벨트에 연결하는 반려동물 하네스(가슴줄) ▲반려동물 승·하차 시 오염을 방지하는 동승석·2열·트렁크 커버 ▲반려동물 탑승을 알려주는 외장 데칼 등이다. 최첨단 ICT 커넥티비티 커스터마이징 상품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IoT 패키지’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윈도, 아웃사이드 미러, 선루프, 시트 열선장치 등 편의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글로벌비스, 델리·뭄바이 지사 설립... 인도공략 속도

첸나이 등 총 4곳 현지 지사 확보  
전문인력 충원, 밀착 영업 진행

현대글로벌비스가 인도 북부와 서부 주요 도시에 영업 지사를 추가로 세우고 현지 물류 사업 보폭을 넓힌다. 매년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 물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인도 북부에 위치한 델리와 서부의 최대 항구도시 뭄바이에 영업 지사를 설립했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비스는 북부와 서부까지 영업망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남부 첸나이, 아난타푸르 법인 등 총 4곳의 현지 전략 기지를 통해 인도 주요 거점에서 물류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델리·뭄바이 지사는 인도에 진출한



현대글로벌비스 첸나이법인에서 인도 북·서부로 완성차를 운송하는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글로벌 화주 대상의 3차 물류 영업 확대 역할을 맡는다. 인도 물류시장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총원해 지역과 산업군을 고려한 밀착 영업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지사는 크게 완성차 운송, 자동차 부품 운송, 일반화물

운송, 수출입 물류 등 4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완성차 운송 부문에서는 델리와 뭄바이 지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영업을 집중해 신규 비계열사 화주를 발굴할 예정이다. 새로 수주한 물량을 인도 전 지역에 육상으로 운송하고, 도착지에서는 화물화물을 추가로 영업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부품 운송도 실시한다. 인도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커지면서 사후처리(AS)부품 운송 시장도 매년 약 18%씩 성장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인도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AS부품 운송 수주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